



## 건축학적 상상력 동원한 문명세계 비판 사랑의 힘으로 시적 요설에 진정성 담아

— 「56억7천만년의 고독」 펴낸 함성호씨

이 책 그 사람

“저 황도를 홀로 가는/태양의 지루한 여행을 위해 이 시집을 바친다.” 함성호씨(30)의 첫시집 「56억

7천만년의 고독」(문학과지성사)의 현사는 그렇다. “건축학적 상상력으로 문명세계를 비판”했다는 이 시집의 ‘自序’는 모든 “천불 천탑 세우기/내 詩쓰기는 그런 것이다.”이다. 뒷표지의 ‘詩論’의 첫구절은 “사실 모든 시는 다 실험시다”이다. 그리고 62편의 시가 실린 1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어느 곳을 들춰내도 그가 “구토”해낸 세계는 한마디로 거하다.

미래불인 미륵불이 佛紀 56억 7천만년에 인간세를 용화정토로 일구어놓기까지의 인류의 역사는 “이성의 광란의 역사”인 바, “그 꼴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미륵의 고독과 그 미륵을 기다리는 민중의 고독”을 대변한 게 이 시집이라는 시인의 설명이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細하다”라고도 말한다. “고된 날에는 사람 냄새에 구토가 일” 만큼 예민한 후각과, 어머니의 고향인 함경도 무산 사투리나 무당의 어투를 유들유들하고도 능청스럽게 구사하는 그의 언어에 대한 미각, ‘-하더라’ 종결어미의 ‘급박한 ‘라’ 음’에서 유년의 추억을 끄집어내는 감각 등은 시집을 읽는 중간중간에 “아아 細하다”라는 신음을 자아내게 한다는 것이다.

아메바와 코벨소처럼 거리가 먼 그러한 두 감각이 불거진 이음새없이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한다면 그것은 “모든 이분법을 거부하며 모순없음의 세계인 신화에 기댈기 때문에 아닐까?”라고 시인은 설의한다. 그같은 세계관은 실제로 “내가 좋아요 내가

싫어요 내가 독이요 내가 약”이라는 등의 많은 잠언투의 표현을 얻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러한 파릇파릇한 짝들 속에서 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나아가려는 고통스런 한 정신을 만나게 된다”고 이 시집의 ‘해설’을 쓴 평론가 김진수씨는 읽는다.

“문학은 고귀한 꿈과 미친한 현실의 접선에서 1초에 10억번 미세하게 떨면서 지나가는 어떤 섬광 같은 것”이라는, 역시 거하고도 細한 문학을 개진하는 함시인은 그의 정서적·이념적 뿌리는 “무당의 비나리와 당집의 울긋불긋함, 어린 영혼을 무수히 혼미케 했던 징소리와 향냄새” 등이라고 밝힌다. 그 세계는 “미신이 과학이 되고 신화가 현실이 되는” 거대한 세계인데, 그 세계를 “불치의 사랑”으로 그리고 “파랗게 이는 불꽃이며 남몰래 간직한 사랑의 힘”으로 밝혀줌으로써 그의 시편들의 한 특색인 장광설과 요설에 진정성을 담아낸다.

그는 지난달 15일에 직장이던 건축설계사무실을 관났다. “머리가 빠개지도록 놀고 싶어서”가 그 이유의 전부이다. 이유의 뼈대에 살을 좀 붙이자면, “가보지도 않고 형상화시켰던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서”라는 것이다. 일례로 ‘건축사회학’ 연작 중 하나인 「해인사」도 “아직 가본 적 없고, 설계도면을 보며 쓴 작품”이라는 것. “거울 보고 그린 것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나를 그린 것”이라는 시집표지의 ‘컷’도 그러하다. 그의 시는 미메시스가 아니라 세계가 그의 시의 반영물인 셈이다. 그것이야말로 미륵시대의 진실인 것처럼 여겨진다.

— 김중식 기자



## 미혼여성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이야기 성공과 실패의 사례 소개해 실제적 도움

— 「내일의 신부에게」 펴낸 최순덕씨

이 책 그 사람

인간은 어차피 혼자만은 살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또 남자에게 어떤 의미로든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켜 주려고 노력한다. 그 노력은 물론 사랑이라는 말로 곧잘 표현되고 있는데 결혼은 사랑과 연관시켜 볼 수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랑의 종착역이 결혼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도 많다. 결혼에 실패하는 사람도 결코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패’라는 단어는 대단히 좌절스러운 말이다. ‘사랑과 결혼에 실패했다’는 말처럼 당사자에게 혼란스러운 것은 별로 없을 듯하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며 사랑하고 싶어한다. 남녀 모두에게 사랑은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나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하다...”

최근 최순덕씨(36, 자유기고가)는 「내일의 신부에게」(동녘)서문에서 인간의 ‘원초적 본능’으로서의 사랑타령을 풀어놓으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결혼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다.

물론 이 책 말고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한 책은 부지기수로 많다. 하지만 이 책은 여타의 것들에 비해 실제적인 면들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함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자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도 꾸밈없이 펼쳐지고 있어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진솔함에 매혹을 느끼게 한다.

“제가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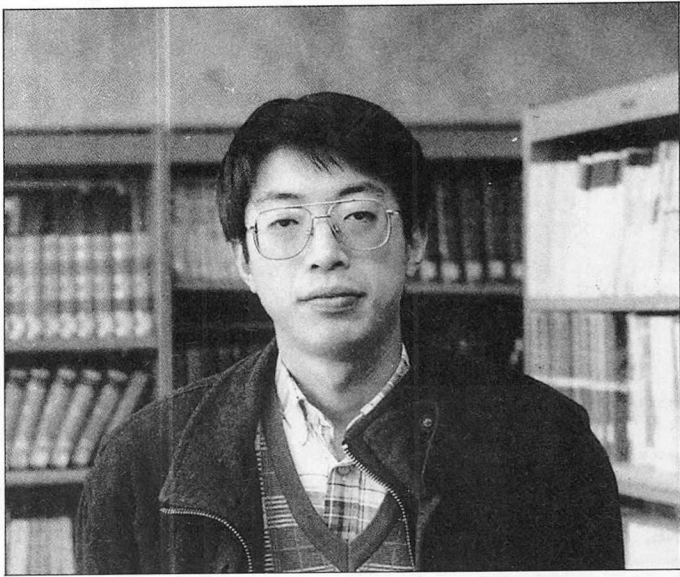
사람을 만나는 편이에요.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바로 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면서, 실제 젊은 세대들의 결혼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도 최순덕씨는 사례의 앞과 뒤에 상담자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여성을 구타하는 남편을 길들이는 방법이라든가, 돈을 보고 결혼한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등 산재한 부부간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방법들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책의 제목이 「내일의 신부에게」 이기는 하지만 남자들이 이 책을 더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신의 결혼관을 밝히는 최순덕씨의 대답은 조금은 장난끼를 동반하고 있다. 그녀는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 사회에서 여성은 제대로 취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여성들은 가정에서의 살림이나 출산에서 사회적 성공에 버금가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덕씨는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직까지 이 사회의 구조는 여성들에게 불합리한 점을 강요하고 있다. 부부생활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부부라는 것이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될 수 없다는 필연성 때문에 한번쯤은 자신들의 문제를 다 털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바람직하다”는 ‘과거의 신부’(?) 최순덕씨의 지적은 당연하면서도 쉽게 잊고 지내는 말이기도 하다.

— 이성수 기자



## 도서관 활성화방안 다룬 일선교사 보고서 학교도서관 '부활' 위한 경험의 공개 돋보

—「이제 학교도서관을 살리자」낸 허병두씨

이 책 그 사람

‘학교’라는 공간의 대부분은 교실이 차지하고 있지만, 운동장이나 도서관도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교육공간이다. 그러나 이 원칙도 입시 우선의 교육현실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운동장은 그저 교실에 이르기 위해 지나치는 여는 ‘거리’와 다름없고, 도서관은 동네 독서실보다도 이용률이 낮은 유명무실한 ‘창고’에 지나지 않는다.

일선교사로서 날로 황폐해가는 학교도서관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허병두씨(32, 송문고 국어교사)는 “도서관의 활성화를 통해 점진적인 교육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식적인 논문집이나 단행본 형식의 자료집은 아니지만, 도서관 담당교사로서의 생생한 경험과 나름의 자료분석을 토대로 완성된 ‘이제, 학교도서관을 살리자’라는 일종의 ‘보고서’가 그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뜻과 경험을 나누기 위하여’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학교도서관을 둘러싼 완강한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개함으로써 적어도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전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는, 무엇보다도 이 작업이 뜻을 같이 하는 일선교사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어두운 교실, 시드는 아이들’로 상징되는 작금의 교육현장에서는 “교실조차 진정한 학교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증언’인데, 이제 도서관이 교실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꽤나 다양하고 뿌리 깊은” 선입관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존재의의마저 흔들리고 있음을 우려하는 그는, 구체적으로 냉소형, 우매형, 적대형 등으로 이 장애물들을 유형화하기도 한다. 이 속에는 학교도서관의 운영 주체여야 할 교사 자신들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그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것은 “담당교사는 있어도 전문사서는 없다”는 점이다. 비교적 내부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 송문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 그 다음이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도서목록의 확보로, 수험생이라도 “마음만 바쁘지 실제로 책읽을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처음엔 ‘열쇠만 맡아달라’는 ‘부탁’으로 시작, “생각보다 많은 장서를 썩히기가 아까워” 본격적으로 도서관일에 뛰어들면서 신간확보는 물론 “책누리”라는 회보까지 만들게 된 그의 이력은 도서관 운영의 한 모범적 사례로 이번 보고서에도 자세히 기록돼 있다.

동문들의 협조로 도서관기금까지 마련해놓고 있던 하지만, 한편으론 10명도 안되는 도서관 인원으로 청소하기만도 벅차다는 그는 미납자관리 같은 정작 중요한 일은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라고.

“창고지기를 면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그는 2년전, 문학지를 통해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거슬러 올라가면, 책에서 비롯된 이 모든 인연은 어려서부터 동네서점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준 부친 덕에 이뤄졌다고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학교도서관을 통한 독서지도가 글쓰기 교육에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 정소연 기자



## 현대어로 풀어쓴 중국 도교철학의 고전 상세한 각주 풍부히 달아 원전에 접근

—「莊子」새롭게 역주한 안동림교수

이 책 그 사람

物神이 主神으로 대우받는 현대인들의 삶에 잠시나마 그 욕망을 이완시키고 피로한 정신에 청정제가

될 만한 책으로 「莊子」만한 古典이 또 있을까. 장자의 구절은 이르기를 “천지가 위대하고 만물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되고 스승이 되는 것은 無心”이라 했거니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더 낫고, 더 좋고, 더 편리한 물질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에 利己의 덩어리인 사람이 무심해지거란 어디 쉬운 일인가. 다만 無心하려는 마음만 배울 뿐이지.

안동림(61)교수가 최근 펴낸 ‘다시 읽는 원전」 「莊子」(현암사)는 관심은 있었으나 난해해 지레 겁부터 먹고 나왔었던 독자들에게 읽기 좋도록 현대어로 풀어쓰고 상세한 각주를 풍부히 달, 그 무엇보다 원전에 가장 가깝게 옮겼다고 자타가 자부하는 역작이다. 그래서 파격한 현실을 떠나 유유자적한 장자 특유의 사상을 배우고자 하거나, 유한한 인생의 의미를 때로 되새기며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자 하는 이들은 책상 한쪽에 올려두고 생각날 때마다 한두 구절씩 찾아읽고 덮어두어도 좋을 만한 현대의 ‘잠언록’이라 함직하다.

장자는 상식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웅졸함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결박당한 왜소함을 연민한다. 그는 세속 인간의 迷途를 통곡하면서 통곡 가운데서 哄笑한다. 그리고 흥소하면서 해학한다. BC 4세기, 파란만장한 고대 중국의 전란기에 태어나 살았던 장자는 그 혼란한 세상 한 귀퉁이에서 어떻게 하면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는가를 고적히 사유한다. 그같은 사유를 통해 삶의 환희와 끝없이

자유로운 절대자의 세계를 찾아내는 중국적 해탈의 논리를 밝힌다.

안 교수가 “이러한 장자의 세계가 그저 좋아 읽기 시작했고, 읽다보니 번역하고 싶어” ‘쉽게’ 시작한 이 역주 ‘사업’은 오늘의 이 책을 받아들기까지 30여년의 세월을 가볍게 뛰어넘는다. 초판본(1973년 발행)을 내는 데만 10년이 걸린 일이 개정판을 내는 데 다시 수년이 걸린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는 서로를 “미련한 꿈”에 비유하는 출판사와 저자가 함께 자랑하는 몇가지의 특징들이 있다. 內篇 7편, 外篇 15편, 雜篇 11편 등 모두 33편의 원문을 꼼꼼히 소개했고, 원문 아래에는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번역한 해설이, 그리고 한글세대를 위해 어려운 한자의 음·훈을 게재하고, 상세한 註를 통해 갖가지의 異說을 소개한 것이 그것이다.

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방대한 책을 역주한 그는 중문학자도, 그렇다고 한학에 달통한 한문학자도 아니다. 그는 영문학을 전공했고, 대학(청주대)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고전문학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한 「이 한장의 명반」(1·2)의 저자이기도 하고 개항 이후 일제를 거쳐 6·25이후까지 우리가요사를 정리한 「한국가요사」의 편역자이기도 하다. 汚穢속에서도 해학을 즐길 줄 알았던 莊子의 생활을 한마디로 “遊戯”로 정의하는 것처럼 그 역시 인생을 요즘 폭 빠져있는 고난도의 ‘전자오락’에 비유한다. 어디 하나 매이는 데 없이 아직도 하고 싶은 일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충만한 그는 博學多識, 悠悠自適한 우리시대의 진정한 ‘장자’가 아닐지.

— 정혜욱 기자